

“ 화두는 의심이고 의심은 마음이니 때와 장소 따로 없습니다 ”

니다. 양심이 없으면 본심이 안 나옵니다. 본심이 바로 선, 화두입니다. 본심에서는 덕이 나오며 덕이 있어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때만이 큰 도가 나오지 인간이 인간답지 않으면 도는 자취를 감추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참된 공부는 참된 사람이 된 후에 비로소 가능해 지는 것이니 평소 양심을 살려 생활하는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실천이 앞서야 합니다. 그것이 공부의 장애를 없애는 지름길입니다.

— 참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양심을 지켜 참된 인간이 먼저 되라고 알려 주셨습니다. 기본부터 착실하게 다져 가라는 말씀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허운 화상께서도 도를 이루는 선결조건으로 계를 엄히 지키라고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 계를 어떻게 지켜나가기 되겠습니까?

▲ 계를 지켜나가는 것은 양심을 살려나가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사회의 모든 법도 그러하고 도덕도 모두 양심을 지키기 위한 방편입니다. 종교의 근본도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에 있습니다. 마음이 착하면 마음이 밝으니 정신이 살아나고 마음이 편하니 안정이 되고 착하지 않으면 어둡고 혼란스럽게 됩니다. 사람이 착한 마음으로 살도록 양심을 살려주는 것이 계입니다. 양심이 없으면 근본 질서가 안 잡히게 됩니다. 계는 사무량심(四無量心)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량심은 한없는 중생을 자비롭게 여기는 네 가지 마음을 말합니다. 자무량심(慈無量心)은 한없는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려는 마음입니다. 비무량심(悲無量心)은 남의 고통을 벗겨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희무량심(喜無量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어 희열을 느끼게 하려는 마음이며 무무량심(捨無量心)은 중생을 경중하게 보아 미워하는 자와 좋아하는 자의 구별을 두지 않으려는 마음을 말합니다. 사무량심은 요즘말로 말하면 사랑이 해 협조 양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 요즘 각 상황에서 수련회가 열리고 참가 열기도 대단합니다. 여름 한철, 속진을 떠나 수행에 임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한 말씀 알려주시지요.

▲ 초등학교 다닐 때 모두 글씨를 배웠을 게요. 그 글씨 하나 배우는데도 처음부터 잘되지 않아요. 수행도 그와 마찬가지로요. 처음부터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수학문제도 처음에는 안 풀리다가 꾸준히 풀려고 씩씩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문제 풀이법을 알게 되고 다른 문제도 풀게 되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처음 공부에 임하는 이들은 자신 속에 깊이 감추어진 보석을 깨내는 마음으로 임해야 하며 물러서지 않는 용맹심이 있어야 합니다. 한꺼번에 무언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욕심을 버리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하십시오. 처음 앉으면 온갖 생각이 일어나고 이리저리 마음대로 움직이던 몸을 가만히 앉혀 놓으니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저것 하고 싶었던 마음, 여태껏 지어왔던 습기 등 일체를 내려놓는 작업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화두에 앞서 명상으로 마음을 비우고 정신을 차린 후에 참선을 해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는 방법은 지금 상황에서 하고 있는 예불, 기도, 독경, 참회 이러한 것들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예불은 공경, 하심의 마음을 일깨워주고 참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짓게 되는 죄를 없애주며 기도는 희망을 줍니다. 또한 예불은 부처를 생각하며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인데, 부처님은 나의 마음과 같으므로 내가 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불, 기도, 예불, 참회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고 대중전 부처님처럼 딱 앉으면 절로 의심이 들고 마음으로 곧바로 들어가기 되는 것입니다. 망상 번뇌가 일어나서 힘들다고 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렇게 마음을 비워 내면 화두는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차츰 묘리가 터득 되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수련회 기간동안 준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임하다 보면 단시일 내에 어떤 변화가 오지는 않더라도 그것이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특별한 기간동안이나 특정 장소에서만 공부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 가운데서 계를 잘 지키고 마음을 비우고 공부를 계속해야 할



◇ 우리의 참모습은 맑고 깨끗하고 고요한 것 자체를 갖추고 있으므로 화두를 함으로써 본래 있는 것이 나타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대정스님.

“공부하세요...한결같이 꾸준히”

“양심대로 살게하는 것이 지계”

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심어두었던 씨앗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잎이 나고 나중에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 깨달음이나 수행을 아주 특별한 것으로 보거나 생활과는 동떨어진 신비스러운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깨달음은 출가 수행자들의 전유물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깨달음에 승과 속의 구별이 있는지요?

▲ 부처님 법을 멀리 현실 밖의 일로 여기는 사람들은 부처님 법을 잘 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은 현실 밖의 일이 아니라 현실 생활에 있습니다. 부처님 법이 현실 생활을 무시하고 현실 생활에 도움이 안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현실, 일상을 벗어나 법이 있지 않으며 중생의 삶을 벗어나 부처님 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속인도 올바른 참선하면 성불하는 것이고 중도 아무리 출가했다 하더라도 올바른 공부가 하지 않으면 도와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도와 상관이 없으면 부처님 법

을 제대로 따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방에서 공부하는 스님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스님이 되었으니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쓰고 정신을 맑혀서 뜻을 살리지 못하면 속인과 다른 것은 머리카락이 있고 없고의 차이뿐이고 동등과 다른 것은 네발로 걸고 두발로 걷는 것의 차이밖에 없다”고 말하곤 합니다. 탐진치로 가득차 있으면서 머리만 쥐는 스님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출가를 했든 하지 않았든 뜻을 살려서 부처님 법을 이어야 올바른 수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스님께 찾아와 화두를 받고자 하는 이들이 많을 텐데 스님께서 어떤 화두를 주십니까?

▲ 요즘 사람들은 고등 교육으로 아는 게 많아서 진실한 의심이 잘 안되요. 알음알이가 끼여 듣고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 우선 내가 누구인지 그 의심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자신을 아는 것 같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나를 모르다. 그것이 해결되면 우주 인생의 진리가 모두 한꺼번에 해결되니까요.

▲ 물론 통일입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세계 일류국가 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이라고 남과 북의 외형상의 통일로만 이해해서는 안돼요. 남

과 북의 통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화합과 단결을 의미합니다. 남북, 동서, 개인 각각이 서로 화합하는 것이 진정한 통일입니다. 화합은 나를 내세우거나 고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됩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하심, 공경, 평등의 마음에서 화합은 절로 나옵니다. 서로가 믿고 가능한 아집을 타파하고 오직 사랑, 이해, 양보하는 사무량심을 살려내야 하지요. 동서화합, 남북통일, 세계평화 등 멀게만 보이는 모든 것이 마음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 스님께 찾아와 화두를 받고자 하는 이들이 많을 텐데 스님께서 어떤 화두를 주십니까?

▲ 요즘 사람들은 고등 교육으로 아는 게 많아서 진실한 의심이 잘 안되요. 알음알이가 끼여 듣고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 우선 내가 누구인지 그 의심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자신을 아는 것 같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나를 모르다. 그것이 해결되면 우주 인생의 진리가 모두 한꺼번에 해결되니까요.

대담=천미희 기자 (mhcheon@buddho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opia.com)

지옥스님의 스님이야기

■ 모모 스님

범명 밝히기를 꺼려하여 그냥 '모모(某某) 스님'이라고 해둔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야기의 내용이 중요하다. 나는 모모 스님의 언행을 통해서 그를 알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간혹 방송에 산길을 가다가 그 모습이 떠오르곤 한다. 마음 속으로 대단히 존경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스님을 처음 본 것은 내가 해인사 율원에 몸을 담은 시절이었고, 스님은 선원장을 맡고 계셨다. 인간적이라는 게 마음에 와 닿았다. 정말 나는 그런 스님이 좋았다.

“지옥 스님, <전등록>에 이런 말씀은... 내 가방 끈이 짧아서 잘 몰라요. 하하하” 모른다고 쉽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티를 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백련암 방장 스님을 뵈고 대화한 내용을 들려주는 등 늘 솔직한 말을 해주셨다. 참선공부에 관해서도 스님이 아는 건 대체로 드문드문 들려주셨다. 문답한 내용이 지금이야 잘 생각나지 않지만 그때 당시는 너무나 실감이 나서 두 귀가 종긋었다고 느낄 정도로 열심히 들었다.

인간적이고 공부 열심

마음으로 존경하는 선덕

한번은 선방에서 산행을 가는 날이었다. 결계 후 한달 보름이 지난 날로 반 살림 날이면 으레히 가고, 7일 용맹정진 후에도 꼭 산행을 한다. 이때 일이 터졌다.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으나 일처리에 선원장스님이

“안 된다면 안 돼!”

하고 강하게 반대하셨다. 완강하게 말을 꺼내면 일단 밀어붙이시는데 그게 참 묘하다. 다른 스님이 밀어붙였다가는 소동이 날 일인데도 선원장스님의 말에는 모두 쥐 죽은 듯이 잠잠해진다. 주변 분위기를 아주 엄숙하게 끌고 가는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다.

그래도 이런 완강한 주장이 한철 90일 중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다.

모모 스님의 주위에는 좌우보처(左右補處)로 든든한 스님들이 턱 버티고 있다. 삼국지에서 유비 덕인(德人)의 결의 관우 장비 같은 중랑급 장수가 용솨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게 다 통솔력이요 덕화(德化)가 아닌가 한다. 스님을 모시고 살기를 바랬지만 그 이후로는 한번도 볼 수가 없었다.

모모 스님은 내게 당신의 약점을 드러내 보여서 신뢰가 간다. 몸이 아픈 기색이 보이면 약으로 산해진미 공양을 시켜 주신다. 아야, 그런 형 같은 스님이 있길 잘하는데... 후배 앞에서 당신의 약점을 내보이기도 여의 쉬운 일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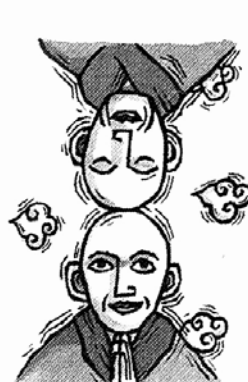
선원 방람록의 최초 창간이랄까 출발은 모모 스님이 주축이 된 걸로 안다. 총무원이 주관해서 발행해 오던 결계 방람록은 그때부터 해인총림 선원으로 그 발행처가 옮겨졌다. 당시 소란스런 총무원을 싫어해서 결계 수좌 만의 방람록이 독립

되어 나오게 된 것이다.

또 한번 모모 스님을 저울질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소란스런 총무원이 넘어지고 수좌 만의 가풍을 살린다고 해서 총무원장, 그 이하 요직 부장을 조계사 주지를 포함해서 선방 스님들이 소임을 산 때 가 있었다. 모모 스님도 총무부장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여름에 물에 헤엄치려 들어갔다가 빠져서 임적인 휴암 스님은 그때 조계사 주지 겸 재무부장이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오래가지 않았다. “총무원에서 일하시는 스님네가 정말 존경스럽다.”

하야(下野)의 변(辯)치고는 의외였다. 법문 중의 이사불이(理事不二) 세계는 공염불(空念佛)인가. 누구나 현상계에서는 역시 악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확인시켜 준 셈이다. 총무원 스님들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선방에서는 총무원을 우습게 여기고,



그림·문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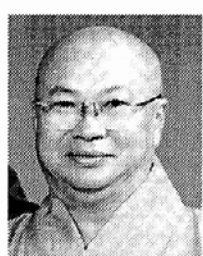
“총무원이 썩어 빠져어!” “사관승은 무엇을 하는 작자들이야!” 때로는 지대방 안에서 이렇게 입암장을 쫓는다. 그러나 정작 말아서 해보니 그게 아니었다. 모모 스님 역시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사(理事)는 정말 하나 되기가 힘들구나.”

행정 능력은 기초부터 다져진 이가 아니면 안 된다. 평생 수좌로 참선만 하고 지낸 이에게 총무원 일은 어울리지 않는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야말로 대중대 총무부를 보게 된다. 공부인은 공부만이 능사(能事)이다.

모모 스님은 역시 요지부동한 자세가 기억에 남는다. 앉은 자세, 선 자세, 걷는 자세 등 모두가 위엄이 있다. 공양을 할 때에는 시선이 밥 하나에만 집중된다. 목서 같다.

나도 그런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면서 큰방 발우 공양 시간에 모모 스님이 늘 머리에 떠오른다. 인상이 깊은 탓일 게다. 숲 속에 들어서도 모모 스님의 향기가 있다. 20년 가까운 세월, 모모 스님의 훌륭한 인품은 늘 내 곁에서 그림자처럼 따랐다. 하여튼 모모 스님은 마음으로 존경하는 선덕(禪德)중 한 분이다.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표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양원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든든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술업식(2개월 50만원), 술요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정진고(2개월 100만원), 지선정진고(2개월 50만원)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비은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정을 맺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만사를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혜명 합장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표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격 : 정가 오십만원(7년간 발표식품, 2개월분)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의료인 효성 양방·한방병원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
(이사장 비서실) ☎ (052) 254-2600

여성중앙 99년 6월호

지금 일본에서 최고 인기! '크로스 건강법'을 아시나요?

참가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다 세시미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식품입니다.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 수상한 사실이 있음.
불치병(병명을 못찾는 분), 기관지 천식, 위장병, 정신 질환, 간질, 중풍, 고혈압, 당뇨 치료문의
무료진맥·완치!!